

17~19C 실학자의 저술에 드러난 고유어 민간어원 소고

김지은*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민간어원(民間語源)은 어원론에서 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민간어원을 어원론과 분리하여 독자적인 영역으로 다루고자 하나 일단은 그 기원을 밝히기 위하여 어원론에 대해서도 간단히 정리해 두고자 한다. 어원론과 연관된 최근의 연구로는 Malkeil(1993), 김방한(1990), 강현규(1988, 2003), 조향범(2009), 이기문(1991a) 등이 있다.

어원론 개론서인 김방한(1990)은 연구 방법, 기본 개념, 연구사 등 서구 어원론의 제 연구를 모아 한 권으로 녹여낸 책이다.¹⁾ Malkiel(1993)은 어원론(Etymology)을 제목으로 내세우고 있긴 하나 어원론의 제(諸) 연구방법과 전체적 연구사를 분석한 연구서는 아니다. 다만, 어원론의 부활을 위해 서구의 근세 어원론 연구사를 정리함으로써 그 쇠퇴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두 연구는 모두 언어학 분야, 그 중에서 인구어를 대상으로 한 서구 언어학 분야의 어원론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어원론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

강현규(1988, 2003)도²⁾ 서구 어원론에 이론적 기반을 두기는 하였으나 본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1) 또한 김방한(1990)도 Malkiel(1993)과 동일하게 어원론의 부흥을 기원하고 그 당위성을 주장한다.

격적으로 국어어원론만을 다뤘다는 점이 앞의 두 연구와 구별된다. 국어에 대한 어원론이 포함된 자료를 망라하여 통시적으로 정리해 놓았다. 조항범(2009)은 강현규(1988, 2003)와 같이 국어어원론을 다루나 강현규(1988, 2003)에서 통시적으로 나열해 놓았던 자료를 범주화하여 ‘친족어휘’, ‘사람어휘’, ‘동물어휘’ 등으로 묶어 정리했다는 특징이 있다. 어휘사(語彙史)에 관한 논문집인 이기문(1991b)은 국어어원론 논의에 중요한 주춧돌 역할을 해준다. 일반적인 어원 연구 방법뿐만 아니라 고대국어(古代國語)부터 근대국어(近代國語)까지 이원적(二元的) 언어생활을 해온 국어 어원 연구 방법의 특수성을 지적하고(이기문, 1991b), 나아가 특히 몽고어 차용어(借用語)를 중심으로 하여 현재 고유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어 어휘들이 차용어임을 밝히기도 하였다(이기문, 1966, 1978, 1985a, 1986, 1991c). 본격적인 단행본은 아니어서 국어어원론 전반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기문(1991a)은 어원론 연구의 방법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런데 어원론, 특히 국어어원론에서 민간어원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 Malkiel(1993)은 민간어원(folk etymology)에 따로 장을 할애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주제로 연구한 주요 학자들의 연구 내용을 소개하였다. 하나는 Ernst Förstemann(1822~1906)의 ‘German folk etymology’이고 다른 하나는 김방한(1990)에도 소개된 언어지리학자인 Jules Gilliéron(1902~1920)의 연구이다. Malkiel(1993)에 따르면 Förstemann은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언어 공동체를 하나의 뇌처럼 보고 그 민간어원을 분석하였다. 한편, Malkiel(1993)과 김방한(1990)에 소개된 바에 따르면, 민간어원은 Gilliéron 등의 언어지리학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조명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Rundblad & Kronenfeld(2000)는 영어의 민간어원을 유추(analogy)로 인한 단어 형성과 연관 지어 연구한 논문으로서, 사전[Palmer's dictionary of folk-etymologies(1890)]에 등재된 100여 개의 표제어를 민간어원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하였으나 50%가량을 분류하는 데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철저

2) 강현규(2003)는 사실상 강현규(1988)의 재판에 해당되는데 서지사항에는 초판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렇게 표기하였다.

히 영어학에 기반을 두고 있어 국어 민간어원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국어학 연구에서는 개별 어휘의 어원을 탐구할 때에 보조적으로 민간어원이 쓰인 경우는 많으나 민간어원을 1차 주제로 하여 연구한 사례는 남풍현(1985)에 그친다. 그런데 남풍현(1985)도 『향약구급방(鄉藥救急方)』을 연구하며 부수적으로 나온 민간어원을 모아 소개한 연구인 까닭에 본격적인 민간어원 연구라고 보기는 힘들다. 사실 ‘민간어원’이라는 용어의 정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설정이다. 김방한(1990), 강현규(1988, 2005), 조항범(2009), 남풍현(1985)은 모두 조금씩 다른 ‘민간어원’정의를 제시한다. 김방한(1990)³⁾에서는 정의를 따로 명문화하지 않고 과학적 어원 연구인 ‘학자 어원’에 대비되는 용어로 ‘민간어원’을 사용한다. 강현규(1988, 2003)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화자가 어떤 형태적 유사성에 근거하여,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형태를 실제로는 친족관계(유연성)가 없는 다른 형태와 결부시키는 현상”이나 “개인적인 실수”라고 정의한다. 조항범(2009)과 남풍현(1985)에서도 사실상 강현규(1988, 2003)와 비슷한 정의를 공유하나 조항범(2009)에서는 좀 더 부정적인 의미를 넣어 “민간에서 속설로 떠도는 비과학적인 어원”이라고 한다.

민간어원 연구의 중요성은 김방한(1990)에서 몇 차례 지적되는데 필자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으며, 여기에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가 놓여 있다. 김방한(1990)에 따르면, 민간어원은 화자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언어에 대한 본질적인 인식을 보여 준다. 그렇기에 그 언어 인식에서 비롯된 언어의 통시적 변화를 분석하는 데에 민간어원은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다. 비록 고대 국어부터 현대 국어까지 망라하지는 못하지만 일단 그 중에서 비교어원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기인 실학 시기의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연구를 위한 초석을 놓고자 한다.

3) 여기에서는 심지어 ‘민중 어원’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여기에서는 ‘민간어원’으로 통일하여 기술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고에서는 조선 후기 실학 시대(17~19C)에 해당되는 자료들에 나타난 고유어 민간어원을 모아 정리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고유어’는 “본래부터 국어에 있었던 어휘”와 “귀화어(歸化語), naturalized word)”⁴⁾를 포함한다 (심재기, 2011). ‘민간어원’은 지금껏 여러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개념을 종합하여 ‘어원 분석 주체가 (국)어학자가 아니거나, 실제 어원에 어긋나는 내용이거나,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어원론’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사실상 17~19C의 저술에 나타나는 고유어 어원론 거의 모두가 ‘민간어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당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을 ‘어원론’이라 명명할 수도 있겠으나,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아 ‘민간어원’으로 재정의(再定義)한 것이다.

직접 활용될 1차 자료는 이수광(李睟光), 『지봉유설(芝峰類說)』(1614), 이익(李瀆), 『성호사설(星湖僊說)』(1710年代~1763), 이덕무(李德懋), 『청장관전서(青莊館全書)』(1775~1780), 황윤석(黃胤錫), 「화음방언자의해(華音方言字義解)」(1780年代), 유득공(柳得恭), 『경도잡지(京都雜誌)』(1776~1800?), 유득공(柳得恭), 『발해고(渤海考)』(1784), 김매순(金邁淳), 『열양세시기(冽陽歲時記)』(1819), 정약용(丁若鏞), 『아언각비(雅言覺非)』(1819), 홍석모(洪錫謨),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1849)이다.⁵⁾ 강현규(1988, 2003)에는 이외에도 다수의

4) 심재기 외(2011); “한국 한자음으로 읽히지 않”고 “우리말로 변용되어 본래의 어형으로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원래의 어형에서 멀어져 대부분의 화자가 그 어원을 알기 어려우므로 거의 고유어처럼 인식된다.”

5) 참고한 번역문은 아래와 같다.

이수광(2001), 남만성 역주, 《지봉유설》, 을유문화사.

이익, 한국고전번역원 역주, 〈성호사설〉, 〈홍고전번역서〉 성호사설, 고전번역원 DB.

이덕무, 한국고전번역원 역주, 〈청장관전서〉, 〈홍고전번역서〉 청장관전서, 고전번역원 DB.

姜憲圭 (1992), 〈華音方言字義解 譯註, 2〉, 《어문교육논집》 12, 부산대학교국어교육과, pp.21-43.

자료가 언급되고 있으나 위의 자료만이 활용되었다. II장에서는 실학사상과 국어학의 관계를 여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고, 본고에서 다룰 자료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각 자료에 해당되는 민간어원을 제시할 것이다. 후에 III장에서는 모아진 민간어원 자료를 다시금 세 묶음으로 나누고, 선행연구 혹은 다른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입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II. 실학자의 어원설

1. 실학사상과 국어학

백낙준(1983)에 따르면 동양 사상의 특성상 실학은 이론보다는 실천에 치중하여 있기 때문에 개념을 정립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까닭에 “실학의 학문성 수립”과 “실(實)의 의미해석”은 아직까지 실학 연구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그렇기에 여기에서는 ‘실학’의 정의문제는 우선 차치해두고 시대 구분과 선행 연구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실학자를 구분하기로 한다. 현대 역사학에서는 실학풍이 반계 유형원(磻溪 柳馨遠, 1622~1673)과 지봉 이수광(芝峯 李睟光, 1563~1628)에서부터 나타나고 성호 이익(星湖 李瀨, 1681~1763)에 이르러 뚜렷해졌다고 본다. 그리고 오주 이규경(五洲 李圭景, 1788~1856)과 혜강 최한기(惠岡 崔漢綺, 1803~1877)가 실학의 최종 단계였다고 보고 있다(박종홍 외, 1983). 이렇게 보면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이 실학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박종홍 외(1983)에 따르면 실학의 핵심은 “근대지향”과 “민족의식”이다. 이에 따라 여러 학문 분야가 다채롭게 발전할 수 있었는데, 국어학도 그러한 학문 분야 중 하나이다. 우선, 문자·음운 분야는 기존 학문 조류에 크게 어긋남이 없이 연구되었다. 다만, 실학 시대 이전에도 이미 중요하게 다

洪錫謨 外(1987), 韓國學 研究院 編, 《(原文譯註)東國歲時記 外》, 서울: 大提閣.

丁若鏞(1976), 金鍾權 譯, 《雅言覺非》, 서울: 一志社.

뤄졌던 음운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 한자음과 훈민정음에 관한 연구도 깊이 있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다르다(강신항, 2012). 실학 시대 국어학 연구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점은 바로 어휘 연구에 있다. 이 시기에는 실생활에 기반하여 언어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물명 및 속담 수집, 어원 및 방언 연구, 이두 연구, 외국어 연구 등이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이는 “우리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각에 의해 시작된 것이고, 자국의 문물과 문화를 재인식하려는 의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기에(연규동, 2012)⁶⁾ 실학과 국어학이 만나 이루어낸 폐거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실학 시대의 어휘 연구 중에서도 어원 연구, 그 중에서도 민간어원에 대해 다룬다. 어원 연구 중에서 학자연구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으나 “우리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각”(연규동, 2012)이라는 의의에는 언어의 주인인 언중으로서 내놓은 어원 해석이 더욱 의미 있으리라 보았기 때문이다.⁷⁾ 여러 선행 연구를 참조하고 필자가 직접 검토한 결과, 고유어 민간어원을 포함한 논저는 본고에서 다뤄질 이수광(李睟光), 『지봉유설(芝峰類說)』(1614), 이익(李漁), 『성호사설(星湖僊說)』(1710年代~1763), 이덕무(李德懋), 『청장관전서(青莊館全書)』(1775~1780), 황윤석(黃胤錫), 「화음방언자의해(華音方言字義解)」(1780年代), 유득공(柳得恭), 『경도잡지(京都雜誌)』(1776~1800?), 유득공(柳得恭), 『발해고(渤海考)』(1784), 김매순(金邁淳),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1819), 정약용(丁若鏞), 『아언각비(雅言覺非)』(1819), 홍석모(洪錫謨),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1849) 등이다.

6) 실학 시대 어휘 연구서 전반에 관하여서는 연규동(2012)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연규동(2012)에서는 물명 연구, 어원 연구, 방언 연구, 속담 연구, 이두 연구, 외국어 연구 등으로 범주화하여 거기에 해당하는 연구서를 소개하고 있다.

7) 물론 1장에서 정의내린 바, 학자가 분석한 어원 중에서도 현대 국어학의 통설과 다르거나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것들은 민간어원에 해당된다. 이 경우에는 비록 주체가 학자이지만 그를 언중의 한 사람으로 보고 그의 빗나간 해석 속에 담긴 언어에 대한 인식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2. 어원설 자료

여기에서는 각 자료와 저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해당 민간어원을 범주별로 제시한다. 여기에서 ‘범주’는 III장에서 다뤄질 내용인데 ‘설화적 어원설’, ‘고유어 어원설’, ‘차용어 어원설’이 그것이다. 순서대로 가, 나, 다로 표시하도록 하겠다. 또한, I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이수광(李睟光), 『지봉 유설(芝峰類說)』(1614), 이익(李瀨), 『성호사설(星湖僊說)』(1710年代~1763), 이덕무(李德懋), 『청장관전서(青莊館全書)』(1775~1780), 황윤석(黃胤錫), 「화음방언자의해(華音方言字義解)」(1780年代), 유득공(柳得恭), 『경도잡지(京都雜誌)』(1776~1800?), 유득공(柳得恭), 『발해고(渤海考)』(1784), 김매순(金邁淳),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1819), 정약용(丁若鏞), 『아언각비(雅言覺非)』(1819), 홍석모(洪錫謨),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1849)만이 1차 자료로 쓰인다.⁸⁾ 지면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원문 혹은 원문 해석을 요약하여 실었다.

(1) 이수광(李睟光), 『지봉유설(芝峰類說)』(1614)

지봉 이수광(芝峯 李睟光, 1563~1628)은 전통적인 성리학에 사상적 기반을 둔 유학자이나⁹⁾ 신학문(新學問)을 수용하는 폭이 넓어 “실학의 선구자적

8) 이 외에도 어원론을 포함한 자료들이 다수 있어 검토하였으나 한자어 어원만을 밝히고 있거나 고유어 어원을 밝히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어원이 아닌 경우가 있어 제외하였다. 제외된 자료들과 각각에 해당하는 이유를 간단히 적어둔다. 신후담(慎後聃), 『해동방언(海東方言)』과 윤정기(尹廷琦), 『동환록(東寰錄)』(1859), 박경가(朴慶家), 『동언고(東言攷)』의 경우 2차 자료가 풍부하지 않고 원전 또한 얻어 볼 수 없어 부득이하게 제외되었다. 정약전(丁若銓), 『자산어보(茲山魚譜)』에는 다양한 해양 생물의 명칭과 어원을 밝히고 있어 흥미로운 민간어원이 다수 있으나 모두 한자어로 바꾸어 표기되어 있어 해당 명칭이 고유어였는지 한자어였는지 밝히기가 어려우므로 제외하였다. 박경가(朴慶家), 『동언고(東言攷)』의 경우 믿음직한 번역본이 존재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이규경(李圭景),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소개된 어원은 한자어 어원이 대부분이고, 그마저도 다른 논저에 소개된 바와 비교했을 때 새로울 것이 없기에 제외하였다.

9) 그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벼슬길에 올라 사망할 때까지 관료로서 지냈다. 선조(宣祖) 18년(1585)에 승문원(承文院)에 뽑혀 사방에 들어가 관직 생활을 시작하여

역할”을 하였다. 『지봉유설(芝峰類說)』(총 20권)은 백과사전식 진술로 다방면에 걸쳐 방대한 내용을 분류 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증을 소홀히 하지 않아 그의 학문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저서이다.(이장희, 1983) 『지봉유설(芝峰類說)』에 실려 있는 어원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가-1. 이음(尼音)/니사금(尼師今): 임금(君)을 뜻하는 우리말이다. 신라에서 이빨이 많은 사람을 어질다고 해서 떡을 물어 이를 시험해서 이빨 자국이 많은 자를 추대해서 임금으로 삼고 이를 니師今(ニサム)이라고 부른 테에서 유래하였다. 《方言, 16》¹⁰⁾
- 가-2. 가야금(伽倻琴): 신라 때 가야국왕(伽耶國王)이 당(唐)나라 악부(樂府)의 쟁(筩)을 따라 만들고, 가야(伽倻)라 명명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音樂, 18》
- 나-1. 라라(羅蘿): 태평소(大平簫)가 내는 소리를 흉내낸 우리말이다. 우리나라 각음(角音) 중 난(難)자를 길게 끄는 소리가 오오(烏烏)인데 라(羅)는 난(難)과 그 음이 서로 비슷하니 여기서 나온 것인 듯싶다. 《音樂, 18》
- 다-1. 수아(酥兒): 술을 가리키는 우리말이다. 『소설(小說)』에 보면 “인도[天竺國]에서는 술을 酥(수)라고 한다”고 하였다. 《方言, 16》
- 다-2. 달화주(達化主): 종들의 공(貢)을 거두는 자이다. 이것은 곧 호원(胡元)의 달루가치(達魯化赤)가 잘못 전해진 것이다. 《方言, 16》
- 다-3. 복아(卜兒): 신(腎)을 가리키는 우리말이다. 『격치총서(格致叢書)』에 보면 몽고(蒙古)에서도 신(腎)을 가리켜 복아(卜兒)라고 한다고 하였다. 《方言, 16》
- 다-4. 몰리(沒里): 하수(河水)를 가리키는 우리말이다. 『운부군옥』을 보면 거란에서도 하수(河水)를 몰리(沒里)라고 한다고 했다. 《方言, 16》
- 다-5. 불화(不花), 백안(伯顏): 한어(漢語)로 번역하면 곧 우리말과 비슷하다. 몽고어(胡語)에서는 송아지를 불화(不花)라고 부르고, 얼굴이 잘 생긴 자를 백안(伯顏)이라고 한다. 《方言, 16》
- 다-6. 아부(阿父)/아미(阿彌): 지금 풍속에 아버지를 아부(阿父)라고 하고 어머니를 아미(阿彌)라고 한다. 어디가 아프면 곧 아야(阿爺)라고 부르고, 놀라거나 두려운 일이 있으면 곧 아모(阿母)라고 부른다. 이것은 곧 옛날 굴원(屈原)이 말한, 사람이 병이 있어 아프거나 슬픈 일을 당하면 일찌기 그 부모를 부르

광해군(光海君)을 거쳐 인조(仁祖) 5년에 정묘호란(丁卯胡亂)이 일어나자 강화도로 내려갔다가 환도 후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제수되어 익년 12월에 생을 마감하였다.

- 10) 출전은 《(편명), (권수)》로 표기한다. 편명의 한자음을 병기(併記)하지는 않도록 한다. 단권(單券)인 경우에는 권수는 생략하고 편명만 적도록 한다.

지 않는 일이 없다고 한 뜻이다. 아미(阿彌)라는 글자는 『이장길전(李長吉傳)』과 최치원(崔致遠)의 『진람비서(眞鑑碑序)』에 나오는데, 원래 당(唐)나라 말이다. 《俗諺, 16》

(2) 이익(李瀆), 『성호사설(星湖僕說)』(1710年代~1763)

성호 이익(星湖 李瀆, 1681-1763)은 평생 초야(草野)에 묻혀 살아간 재야 문인이다. 그는 기일원론적(氣一元論的) 이기론(理氣論)을 바탕으로 성리학의 일가를 이뤄 실증주의적인 학문관을 가진 성호학파(星湖學派)의 문종(文宗)이 된 한편, 계급철폐(階級撤廢)를 근간으로 하는 경제사상을 펼쳐 나가 실학사상 형성에 큰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최승호, 1983). 『성호사설(星湖僕說)』(총 30권)은 그가 독서나 사색을 통해 터득한 바를 수시로 기록한 것들을 모아 조카인 이병휴가 엮어낸 것이다.¹¹⁾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1. 회소곡(會蘇曲): 신라 풍속인 가배 놀이에서 진 편의 한 여자가 일어서서 춤을 추며 ‘회소 회소’(會蘇會蘇 모이소 모이소, 곧 단결을 호소하는 뜻임) 하였는데, 그 소리가 구슬프면서 맑았으므로, 뒷사람이 그 소리를 인하여 노래를 짓고, ‘회소곡(會蘇曲)’이라고 이름했다. 《嶺南俗, 3》
- 가-2. 담배(湛巴): 남쪽 바다 가운데 있는 담파국(湛巴國)에서 들어왔으므로 담배[湛巴]라 명명하였다. 《南草, 4》
- 가-3. 가야금(伽倻琴): 가야국왕(伽倻國王) 가실(嘉悉)이 만든 12현 거문고를 악사(樂師) 우륵(于勒)이 신라에 가지고 가 투항하고 그 거문고를 가야금(伽倻琴)이라고 명명하였다. 《伽倻琴, 4》
- 가-4. 이금(尼今): 제(穄)와 왕(王)은 속음이다. 당시 떡을 이로 물어서 이가 많고 적은 것을 징험했던 까닭에 그 떡을 만드는 곡식 이름을 이금이라고 했다. 또한 유리왕(儒理王)은 잇자국(齒痕)이 많았는데 이(尼)는 치(齒), 금(今)은 흔(痕)이다. 《種穄, 5》
- 가-5. 김씨(金氏): 우리나라의 성씨로서 모두 금궤(金櫃)와 금란(金卵)에 따라 얻게 되었다. 음(音)이 ‘김’으로 된 까닭은 고려(高麗)가 금나라를 섬김으로써 그 참칭(僭稱)을 혐의 한 것이다. 《蒙古金, 20》

- 나-1. 가리(駕犁): 해오라기를 이르는 다른 말이다. 가리는 밭가는 거의 명칭인데

11) 이에 대해서는 국어학사 측면에서 조명된 바 있다. 이선영(2004)에서는 「언문」 편이라든지 「조선방음」 항, 「가리」, 「수레」, 「존장」, 「노형」 등의 어원에 대한 관심 등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 해오라기의 형상이 가리의 모양과 흡사하여 가리(駕犁)라고도 한다. 《漫畫春鋤, 4》
- 나-2. 동동(動動)(1): 1) 동동(鼙鼙)과 같은 뜻으로서 광대들이 입으로 북소리를 내며 춤추는 것을 말한다. 2) 《악학궤범(樂學軌範)》에 실려 있는 곡의 명칭이다. 동(動)은 동(鼙)과 음(音)이 같으므로 와전되어 그렇게 된 것이다. 《動動曲, 15》, 《笑歌, 15》
- 나-3. 동동(鼙鼙)(2): 북소리이다. 이로써 박자를 삼아 율동하는 뜻이다. 《笑歌, 15》
- 나-4. 마립간(麻立干): 신라에서 늘지(訥祇)로부터 지증(智證)까지를 일컬은 말이다. 방언으로 함조(諺操)이며, 함조는 월(撇)이기에 이를 한 것이다. 《新羅稱王, 25》
- 다-1. 두만(豆滿): 두만이란 것은 바다로 들어가는 위치를 말한 것이니, 토문(土門)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여기인데, 어음이 비슷해서 와전된 것이다. 《豆滿爭界, 1》
- 다-2. 안시성(安市城): 봉황을 우리나라에서 ‘아시새[阿市鳥]’라 한다. ‘아시[阿市]’와 ‘안시(安市)’가 음이 비슷하므로 그렇게 명칭이 붙여진 것이다. 《孤竹安市, 2》
- 다-3. 구구: 오늘날 풍속에 병아리를 ‘구구’라고 부르는데, ‘구’는 곧 병아리의 이름이다. 새 새끼와 병아리를 ‘고(鶩)’라고 하는데 ‘고’의 음은 ‘고(顧)’이다. 이는 마치 강아지를 ‘요요’라고 부르는데, ‘요’는 강아지의 이름인 것과 같다. 《朝鮮方音, 8》
- 다-4. 아사달산(阿斯達山): 사(史)에 또, “단군이 아사달산(阿斯達山)에 들어가 신이 되었다.” 하였는데, 아사(阿斯)를 언어(諺語)로 새기면 아홉[九]이요, 달(達)을 언어로 새기면 달[月]이니, 이것이 곧 지금의 구월산(九月山)이다. 《三聖祠, 25》
- 다-5. 마립간(麻立干): 신라(新羅) 시대에 본종(本宗) 정통(正統)인 왕을 칭한 말로 이성(異性)은 갈문왕(葛文王)이라 했다. 『주례(周禮)』에 동성(同姓)에는 ‘마(麻)’로 하고, 이성에는 ‘갈(葛)’로 하여 구별하였으므로 ‘갈(葛)’과 ‘마(麻)’는 절대(絶帶: 상복을 입을 때 허리에 두르는띠)를 말한 것이다. 《葛文王, 23》

(3) 이덕무(李德懋), 『청장관전서(青莊館全書)』(1775~1780)

청장관 이덕무(青莊館 李德懋, 1741~1793)는 다방면을 익히는 방대한 학문을 추구했던 문인으로서 『청장관전서(青莊館全書)』(1775~1780)는 그의 그러한 경향을 반영한 백과사전식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다(朴文烈, 1987).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1. 박씨(朴氏): 신라의 토성(土姓)으로 시조 혁거세가 큰 알에서 태어났는데 알 모양이 표(瓢)와 같다고 하여 표(瓢)의 방언인 ‘박’을 성으로 하였다. 《朴, 5 8》

- 나-1. 서야벌(徐耶伐)/서나벌(徐那伐)/서라벌(徐羅伐): 신라의 초기 명칭이다. 방언(方言)에 신(新) 자를 ‘새로워’로 쓰는데, 이는 신라의 건국이 역사상 새로운 시작이라는 연유로 앞서 국호로 칭한 허다한 이름들이 다 새롭다는 의미를 채택한 것이다. 《常世國, 60》
- 나-2. 서울(徐兀): 지금 우리나라의 국도(國都)를 뜻하는 경(京)을 속(俗)에서 ‘서울(徐兀 서울)’이라 훈(訓)하여 쓰는 것도 옛날의 속언(俗諺)을 따른 것이다. 《常世國, 60》
- 나-3. 섬(苦): 도서(島嶼)를 뜻하는 고유어다. 본래 곡식을 담는 짚거적을 ‘섬(苦)’이라 하는데, 도서(島嶼)의 물 위로 솟은 모습이 곡식 섬이 땅 위에 우뚝한 것과 같기 때문에 명명되었다. 《島嶼訓苦, 60》
- 나-4. 보라(甫羅): 당년(當年)에 깐 매(鷹)로 길들인 것을 ‘보라매(甫羅鷹)’라 한다. ‘보라(甫羅)’라는 것은 방언(方言)으로 담홍색(淡紅色)을 말하는 것인데 매의 깃털 빛깔이 잿기 때문에 이른 말이다. 《鷺鳥種類, 68》
- 나-5. 가막수리(伽漠戍伊): 아주 크고 노루와 사슴을 잡을 수 있는 매(鷹)이다. ‘가막(伽漠)’은 방언으로 검은 색을 말한다. 《鷺鳥種類, 68》
- 나-6. 발남박(李南朴): 도령태와 비슷하고 참새도 잡을 수 있는 새매이다. ‘발남(李南)’이란 방언으로 바람인데, 이 매가 장차 바람이 불려면 곧바로 반공(半空)에 올라 소요(逍遙)하고 내려오지 않으므로 이른 말이다. 《鷺鳥種類, 68》
- 나-7. 담울씨(談鬱氏): 남원(南原)에 장리(牆籬)란 복성(複姓)의 별칭이다. 방언(方言)에 장(牆)의 훈(訓)이 담(談)이며, 이(籬)의 훈이 울(鬱)이기 때문이다. 《複姓牆籬, 68》

- 다-1. 사람: 범어의 ‘마도사남(摩菟舍喃)’은 곧 사람을 이르는 말인데, 우리나라의 방언에 인(人)을 ‘사람’이라 하는 것은 ‘사남(舍喃)’과 음이 서로 비슷하다. 《東國多梵語, 56》
- 다-2. 마리: 범어의 ‘마라(摩羅)’는 만(蠻)인데, 우리나라의 방언에 수(首)를 ‘마리’라 하니 만(蠻)은 곧 수발(首髮)이다. 《東國多梵語, 56》
- 다-3. 어마: 범어의 ‘아마(阿摩)’는 바로 여(女)인데, 우리나라의 방언에 어머니(母)를 ‘어마’라 하고 북도(北道) 사람들은 직접 여인(女人)을 ‘어미’라 부른다. 《東國多梵語, 56》
- 다-4. 바다: 범어의 ‘보타(普陀)’는 곧 해(海)인데 우리나라의 방언에 해(海)를 ‘바다’라 한다. 《東國多梵語, 56》
- 다-5. 사나해(斯那海)/가스나хи(假斯那海): 우리나라 방언(方言)에는 남자를 ‘스나히’

(斯那海)'라 부르고 있고, 경상도에서는 여자를 '가수느 히(假斯那海)'라고 부른다. 금(金) 비빈궁(妃嬪宮)에 있는 시녀(侍女)에게 모두 남자의 의관(衣冠)을 착용시키고 가시아라 불렀는데, 금(金)은 접경국(接境國)이므로 그들의 방언이 우리의 방언과 비슷할 수도 있다. 《假斯兒, 60》

다-6. 선왕당(船王堂): 길가에 돌무더기가 있고 떨기나무가 앙상한 곳을 시속에서 '선왕당(船王堂)'이라 하는데, 그것은 성황사(城隍祠)가 와전된 말이다. 《西海旅言, 62》

(4) 황윤석(黃胤錫), 「화음방언자의해(華音方言字義解)」(1780年代)

이재 황윤석(頤齋 黃胤錫, 1729-1791)은 이조시대 실학파 석학의 한 사람으로서 다방면에 걸쳐 높은 학문적 성취를 이루어낸 한편, “어원분야의 단연 제일인자”로 평가받기도 한다. 『頤齋遺稿』에 수록되어있는 「화음방언자의해(華音方言字義解)」¹²⁾는 우리말의 어원을 특히 화음(華音)과 연결하여 분석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저술로서 그가 어원학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김병균, 2001).

이렇듯 다른 실학자들과 달리 황윤석(黃胤錫)은 본격적인 어학자로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김병균, 1997) 어원론이 그릇되지 않은 이상 민간어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어원의 그릇됨이 모두 밝혀지지는 않은 상태이므로 김병균(2001)을 참고하여 잘못된 어원론으로 밝혀진 경우만 몇 가지 소개해 놓도록 하겠다.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1. 뜻: 형(兄)을 이르는 우리말이다. 이는 ‘맹(孟)’의 음이 바뀐 것이다. 《21項》¹³⁾

다-2. 한(漢, 汗): 대(大)를 이르는 우리말이다. 동운의 중성은 ‘ㅏ’였으므로 홍(洪), 홍(鴻)의 음이 다 ‘항’이고 뜻은 대(大)여서 실은 ‘홍(洪), 홍(鴻)’의 음이 바

12) 김병균(1997)에 따르면 “화어(한자어)에 어원을 둔 우리말, 우리말과 한자어를 대비시켜 놓은 것, 한자의 음훈을 빌어 표기한 우리말, 몽고어에 어원을 둔 우리말, 여진어에 어원을 둔 우리말, 범어(서역어)에 어원을 둔 우리말, 우리말에 자생한 우리말, 한자어에 차용한 한자어, 한자어의 어원을 밝힌 것, 음의 변화에 의해 조어된 것” 등 10가지 범주에 해당되는 어원론이 담겨 있으나 이 중 “화어(한자어)에 어원을 둔 우리말”이 압도적으로 많다.

13) 「화음방언자의해(華音方言字義解)」는 그 자체가 『이재유고(頤齋遺稿)』 25에 수록된 편명이므로 항(項)으로 출전 표기를 대신한다.

꿰어 된 것이다. 《22項》

- 다-3. 아들: 자(子)를 이르는 우리말이다. ‘아희들(兒孩等)’이란 말을 급히 하여 짧아진 것이다. 《23項》

(5) 유득공(柳得恭), 『경도잡지(京都雜誌)』(1776~1800?)와 『발해고(渤海考)』(1784)

영재 유득공(冷齋 柳得恭, 1749~1807)은 민족주의적 주체 의식이 강했던 실학자였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해를 다룬 논저인 『발해고(渤海考)』는 그의 주체적 사상을 잘 보여준다. 『경도잡지(京都雜誌)』는 당대 서울의 풍속과 세시(歲時)를 기술한 자료로서 조선 시대 3대 세시기¹⁴⁾ 중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나경수, 2007).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1. 처용무(處容舞): 장악원 향악부의 무용 중 하나이다. 『문헌비고(文獻秘考)』에 “신라 현강왕이 학성에 노닐 때 동해의 용이 일곱 아들을 데리고 임금 앞에 나와 가무를 했다. 그 중 한 아들이 왕의 수레를 따라 서울로 들어왔는데 그를 처용이라고 한다.”라고 한 데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上元, 2a》¹⁵⁾
- 가-2. 대씨(大氏): 발해의 시조인 대조영의 성씨이다. 어떤 사람은 대씨가 대정씨에서 나왔고, 동이족에서 대씨가 있게 된 것은 대련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君考, b》

- 나-1. 수릿날[水瀨日]: 단오(端午)의 속된 이름이다. 수리는 거(車)의 고유어인데, 단오에 수레바퀴 모양으로 쑥떡을 만들어 먹기에 이른 말이다. 《端午, 2a》
- 나-2. 수리차: 잎이 작고 둥글며 등이 흰 것을 햅볕에 말려 부수어 화음을 만드는 쑥이다. 그것을 짓이거 떡속에 넣어 녹색이 나오도록 반죽하여 수레바퀴 모양의 떡을 만들기에 이른 말이다. 《端午, 2a》
- 나-3. 안출호수(按出虎水): 금원(金原)을 이르는 속어이다. 현지 속어로 금(金)을 안 출호(按出虎)라 하기 때문에 이른 말이다. 《地理考, b》

- 다-1. 절다(截多): 붉은 말을 이르는 만주어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매매할 때에 그대로 사용한다. 《馬驢, 1a》

- 다-2. 구랑(勾郎): 율색(栗色)의 말을 이르는 만주어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매

14) 『경도잡지(京都雜誌)』,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이다. 이에 대해서는 조성산(2012)에서 각 저자들의 연행 경험, 당파적 성격 등에 따라 비교·분석한 바 있다.

15) 『경도잡지(京都雜誌)』는 a로, 『발해고(渤海考)』는 b로 표기한다.

- 매할 때에 그대로 사용한다. 《馬驥, 1a》
- 다-3. 부루(夫婁): 홍사마(紅沙馬)를 이르는 만주어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매매할 때에 그대로 사용한다. 《馬驥, 1a》
- 다-4. 가라(加羅): 검은 말을 이르는 만주어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매매할 때에 그대로 사용한다. 《馬驥, 1a》
- 다-5. 공끌(公鶴): 누런 말을 이르는 만주어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매매할 때에 그대로 사용한다. 《馬驥, 1a》
- 다-6. 고라(高羅): 검은 갈기의 누런 말을 이르는 만주어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매매할 때에 그대로 사용한다. 《馬驥, 1a》
- 다-7. 가리온(加里溫): 해류(海鷗)를 이르는 만주어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매매할 때에 그대로 사용한다. 《馬驥, 1a》
- 다-8. 간자(間者): 선검(線臉, 얼굴에 줄이 있는 말)을 이르는 만주어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매매할 때에 그대로 사용한다. 《馬驥, 1a》
- 다-9. 고고매(苦苦妹): 어린이들이 한 가닥으로 된 생명주실로 거위의 솜털을 불들어 매어 바람을 따라 날리는 것이다. 봉고어로 봉황이란 뜻이다. 《上元, 1a》
- 다-10. 사리: 결걸중상이 아들 대조영과 함께 집안 식솔을 이끌고 영주로 옮겨와 ‘사리’라 칭하였다. ‘사리’란 것은 부락의 벼슬아치를 가리키는 거란말이다. 《君考, b》
- 다-11. 야광(夜光): 밤에 사람의 집에 들어와 신을 훔치기를 좋아 하는 귀신의 이름이다. 혹자는 ‘야광은 瘫鬼다. 그러므로 구광이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구(癯…야위다)’와 ‘야(夜)’의 우리 나라 말이 비슷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나, 야광은 ‘약왕(藥王)’의 음이 와전된 것이다. 약왕의 형상이 추하여 아이들이 두려워하면서 아이들을 일찍 채우고자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元日, 2a》

(6) 김매순(金邁淳), 『열양세시기』(列陽歲時記) (1819)

대산 김매순(臺山 金邁淳, 1776~1840)은 조선의 주자학을 정비하는 한편, 고문가로서도 활약한 “문도합일(文道合一)”을 추구한 학자였다. 『열양세시기』(列陽歲時記)는 18~19세기의 서울지방 세시 풍속을 다룬 세시기(歲時記)로서, 다른 세시기들과는 달리 정보의 고증과 전달보다는 당시 풍속도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에 치중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이규필, 2011).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1. 손돌목(孫石목): 강화도로 가는 바다 가운데의 암초 이름이다. 산수가 힘하고

막힌 곳을 고유어로 ‘목’이라 하고 뱃사공 손돌(孫石)이 10월 二十일 이곳에서 억울하게 죽었으므로 그곳에서 이런 이름이 생긴 것이다. 《上元》

가-2. 가배(嘉俳): 팔월 보름을 가리키는 말이다. 신라 옛 풍속에 왕녀가 육부의 여자들을 테리고 7월 16일부터 큰 뜰에 모여 배를 짜기 시작하여 8월 보름에 그 양을 심사해서 진 사람은 주식을 갖추어 이긴 사람에게 사례하며 서로 가무를 하며 온갖 놀이를 하다 파하였던 데에서 유래하였다. 《中元, 中秋》

나-1. 수릿날(水瀨日):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오날을 ‘수릿날(水瀨日)’이라고도 한다. 밥을 수회(水瀨, 물의 여울)에다 던져 굴삼여(屈三閭)를 제시지내기 때문이다. 《端午》

다-1. 공지(貢指): 어떤 이는 말하기를, ‘공지(貢指..공치의 誤音)’라는 말은 ‘곡지(穀至)’라는 말이 잘못 소리난 것이요, ‘곡지’라는 것은 곡우가 왔다는 뜻이라 한다. 《穀雨》

(7) 정약용(丁若鏞), 『아언각비(雅言覺非)』(1819)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1836)은 실권계층이었던 남인(南人)의 계통을 타고 태어나 여러 벼슬을 지낸 후 마지막 18년간 초야에서 학문적 연구를 함으로써 실학을 크게 이뤘는데, 특히 국어학적으로 보았을 때 『아언각비(雅言覺非)』(1819)는 우리말의 어원을 중국의 한자어에서 구해 밝혀 놓은 것으로서 비교어원론적 가치가 높다(백상현, 2012). 자료는 아래와 같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원 의식은 보이나 직접적으로 어원을 밝히지는 않은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어원론이 직접 드러나지 않은 부분은 아래에 포함되지 않았다.

나-1. 철가래(鐵加羅): 시노(侍奴)가 쓰는 뾰족한 망건(尖幘)이다. 가래(鍊)는 자루가 달려 있지 않고 그 모양이 망건과 같으므로 ‘가래(加羅)’라고 이름한 것이다. 《弁, 2》

다-1. 누비(縷飛): 기워 페매놓은 옷이다. 원말인 ‘납의(衲衣:누비)’의 중국음은 ‘나히’인데, 잘못 번역하여 누비(縷飛)라고 한다. 《衲衣, 2》

다-2. 대패(大牌): 나무를 깎아서 평평하게 만드는 연장이다. 원말인 ‘퇴포(推鉋:대패)’의 중국음은 ‘뒤파’인데, 이를 잘못 번역하여 ‘대패(大牌)’라고 하였다. 《推鉋, 2》

다-3. 거사(居士): 머리를 깎지 않은 중이다. 본래 ‘걸사(乞士)’인데 우리말의 음은

입성이이고, 중국음은 종성이 없으므로 ‘거(居)’와 ‘걸(乞)’이 서로 섞인 것이다. 《乞土, 3》

(8) 홍석모(洪錫謨),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1849)

도애 홍석모(陶厓 洪錫謨, 1781~1850)는 소론계 문인으로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는 그가 『경도잡지(京都雜誌)』의 내용을 이어 우리나라의 세시와 풍속을 정리해 놓은 저서이다.

가-1. 처용(處容): 남녀의 나이가 나후직성에 들면 추영(芻靈)을 만드는데 이를 사투리로 ‘처용’이라 한다. 장악원 향악부의 처용무의 ‘처용’에서 빌려온 명칭으로, ‘처용’은 신라 현강왕 때 동해 용왕의 아들 이름에서 나온 것이다. 《上元》

가-2. 가배(嘉俳): 추석의 다른 고유어 이름이다. 본래 경주 풍속에서 유래된 놀이의 이름이다. 신라 유리왕 때 왕녀 두 사람으로 각기 한 부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칠월 육칠일부터 팔월보름까지 배를 짜게 하여 그간의 성적으로 진 편이 이긴 편에게 사례했다. 이때 노래와 춤을 추며 놀이를 하였는데 이를 ‘가배’라 한다. 《秋夕》

가-3. 회소곡(會蘇曲): 가배 놀이를 할 때에 진 편의 여자가 일어나 춤을 추며 ‘회소(會蘇), 회소’라 하며 탄식하니 이 소리를 따라 노래를 짓고 ‘회소곡’이라 하였다. 《秋夕》

가-4. 변씨만두(卞氏饅頭): 밀가루로 세모 모양으로 만드는 음식의 이름이다. 변씨가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생긴 명칭이다. 《月內[十月]》

나-1. 수렛날(戌衣日): 단오의 속된 이름이다. ‘술의(戌衣)’란 것은 우리 나라 말의 수레(車)인데, 이날 수레바퀴 모양의 쑥떡을 만들어 먹으므로 이른 말이다. 《端午》

다-1. 고고매(苦苦妹): 한 가닥으로 된 생명주실로 거위의 솜털을 불들어 매어 아이들이 바람을 따라 날리는 것이다. 몽고어로 봉황이란 뜻이다. 《上元》

III. 고유어 민간어원설

1. 어원설의 유형

고유어 민간어원설을 분류하는 데에는 강현규(1988, 2003)의 어원 분류법을 일부 참고하였다. 강현규(1988, 2003)에서는 시기별로 “표기문자 자의에 매인 어원적 의식”, “설화적 어원설(삼국시대)”, “한자자의에 의한 어원설(고려~조선전기)”, “초기의 비교언어학적 어원설(조선후기: 실학시대~감오경장 이전)”, “언어의 분석적 어원연구(감오경장 이후~1940년대)”, “언어이론에 의한 어원연구(1940년대 이후)”로 구분한 후, 각 자료별로 어휘의 성격에 따라 다시금 “국명”, “왕명 및 왕칭호”, “관직명”, “산·지명” 등으로 묶어서 기술하였다.

17~19C 실학자들의 저술은 강현규(1988, 2003)에서 “초기의 비교언어학적 어원설” 시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실제 자료에는 다른 시기의 경향들이 혼재되어 있다. 그리하여 강현규(1988, 2003)에서는 통시적 구분법으로 쓰인 범주 개념을 빌려와 본고에서는 공시적으로 자료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우선, “설화적 어원설”은 그대로 가져왔다. 다음으로, “언어의 분석적 어원연구”의 초기 단계에 해당되는 경우도 보였다. 이것들은 고유어 안에서 분석적으로 어원을 밝힌 자료들이어서 ‘고유어 어원설’로 묶었다. 마지막으로, 본래 17~19C에 해당되는 범주인 “초기의 비교언어학적 어원설”은 그 개념은 그대로 사용하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차용어 어원설’로 명칭을 바꾸었다.

2. 설화적 어원설

‘설화’는 구전되는 산문성을 가진 이야기로서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 청자를 대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연할 수 있으며 신화·전설·민담으로 나뉜다.¹⁶⁾ 엄격한 기준 하에서는 문자로 기록되면 ‘설화’라고 할 수 없으나 본

래 구전되던 것이므로 기록된 설화도 설화로 인정한다(장덕순, 2006:37-38). 그렇기에 고유어 민간어원에 쓰인 설화는 비록 문자로 기록된 형태이지만 일종의 설화라고 인정할 수 있어서 “설화적 어원설”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이다.

강현규(1988, 2003)에서는 설화적 어원설을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삼국사기』(三國史記) (1145), 『삼국유사』(三國遺事) (1281), 『동경지』(東京誌) (未嘗)에서 찾고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17~19C 실학사상가들의 저술은 대개 전해오는 문헌을 상세히 고찰하여 내용을 이룬 것들이므로, 그 안에 담긴 설화적 어원설도 상당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근거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절에서는 문헌에 근거한 내용과 문헌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문헌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담배[湛巴], 대씨(大氏), 손돌목(孫石 목)’의 경우에는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를 모아 어원을 적어 놓았고, ‘변씨만두(卞氏饅頭)’는 저자가 명칭을 듣고 스스로 어원을 추측해 놓았다. 아직 선불리 판단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관련된 내용이 없다. 특히 ‘손돌목(孫石 목)’은 해당 장소에 얹힌 전설(傳說)로 구전되던 이야기를 채록했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문헌에 근거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사금(尼師今)’ 혹은 ‘이금(尼今)’은 『성호사설』(星湖塞說)과 『지봉유설』(芝峯類說)에서 언급되었고 『삼국사기』에서 1번, 『삼국유사』에서 2번씩 신라의 귀족이자 학자였던 김대문(金大問)의 설을 인용하여 언급되어 있다. 『성호사설』과 『지봉유설』에서는 공통적으로 김대문(金大問)의 주장을 수용하였다.¹⁷⁾ 다만, 『성호사설』에서는 ‘이금(尼今)’은 이[齒]가 많고 적은 것을 알기 위해 깨물었던 떡을 만드는 곡식의 이름이기

16) 장덕순(2006: 39-41)에 따르면 신화·전설·민담은 전승자의 태도, 시간과 장소, 증거물, 주인공 및 그 행위, 전승의 범위 등 5가지 기준으로 구분된다.

17) 이기문(1985b: 79)에서는 김대문의 어원설을 억측이라고 평가, “민간어원설(民間語源說)”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기문(1987)에서는 “김대문의 어원 연구가 국어사 연구의 첫 업적”이라면서 김대문 어원설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표 1〉 설화적 어원설

어휘	II-2	관련 문헌
담배[湛巴]	(2)-가-2	
대씨(大氏)	(5)-가-2	
손돌목(孫石 목)	(6)-가-1	없음.
변씨만두(卞氏饅頭)	(8)-가-4	
이사금(尼師今)	(1)-가-1	「儒理尼師今」, 『三國史記』一
이금(尼今)	(2)-가-4	「第二南解王」·「第三弩禮王」, 『三國遺事』一
가야금(伽倻琴)	(1)-가-2 (2)-가-3	「眞興王」, 『三國史記』四
회소곡(會蘇曲)	(2)-가-1 (8)-가-3	
가배(嘉俳)	(8)-가-2 (6)-가-2	「儒理尼師今」, 『三國史記』一
김씨(金氏)	(2)-가-5	「義慈王」, 『三國史記』二十八
박씨(朴氏)	(3)-가-1	「始祖赫居世居西干」, 『三國史記』一 「新羅始祖赫居世王」, 『三國遺事』一
처용(處容)	(5)-가-1 (8)-가-1	「處容郎望海寺」, 『三國遺事』二

도 했다면서 또 다른 어원설도 내놓았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 내용은, 이익(李漁)이 철저한 고증으로 유명한 성호학파(星湖學派)의 문종(文宗)인 만큼 어딘가에서 참고하여 적어 놓았을 텐데 그 출처를 찾지는 못하였다.

‘가야금(伽倻琴)’의 어원에 대해서는 『지봉유설(芝峰類說)』의 어원설과 『성호사설(星湖僊說)』의 어원설이 다르다. 전자(前者)에서는 가야국왕(伽倻國王)이, 후자(後者)에서는 우륵이 그 이름을 붙였다고 주장한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가야금이 신라에 전래된 배경만 있을 뿐 누가 명명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떠한 것이 정설(定說)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 조사가 필요하다.

‘회소곡(會蘇曲)’과 ‘가배(嘉俳)’는 그 출전을 공유하고 있다. 〈표 1〉에 ‘회소곡’은 『성호사설(星湖僊說)』과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가배’는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와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 언급된 된 것으로 표기되었으나 실상 『성호사설(星湖僊說)』에서도 ‘가배’가 거론되었다. 다만 『성호사설(星湖僊說)』에서는 ‘가배’를 경주 풍속에서 유래된 놀이의 명칭으로만 보아 그 어원설을 명확히 하지 않았고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서는 추석의 또 다른 고유어 명칭인 ‘가배’의 어원을 놀이 명칭으로써 설명했다는 점이 다르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는 ‘회소곡’의 어원은 밝히고 있지만 추석 명칭으로 ‘가배’가 쓰인다는 언급은 없다.

『성호사설(星湖僊說)』의 ‘김씨(金氏)’ 어원설 중 첫 부분에 간략(幹略)하게 언급된 “금궤(金櫃)와 금란(金卵)”에 관련된 설화는 『신라고사(新羅古事)』를 인용하여 『삼국사기(三國史記)』에 간단히 언급되어 있는데 괴이하다고 치부된다. 오히려 소호김천씨(小昊金天氏)의 후예이기에 ‘김씨’가 되었다는 데에 더욱 무게를 실어준다. 반면, 『청장관전서(青莊館全書)』에 실린 ‘박씨(朴氏)’ 어원설에 대해서는 김씨의 어원설과는 달리 괴이한 일로 치부되지 않고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모두 같은 내용으로 자세히 실려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처용(處容)’은 『경도잡지(京都雜誌)』와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실려 있다. 다만, 『경도잡지(京都雜誌)』에서는 ‘추영(芻靈)’의 사투리로서 ‘처용’을 들고,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서는 처용무의 ‘처용’을 들어 그 어원설을 풀이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三國遺事』에 처용의 설화가 자세히 실려 있는데, 두 자료에 소개된 어원설의 배경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3. 고유어 어원설

여기에서 ‘고유어 어원설’이라 함은 언어 외적 요인이나 외국어에 의존하지 않고 고유어 안에서 그 어원을 분석해낸 민간어원을 말한다. 이미 다른 대상의 명칭이었던 것이 “사물의 유사성” 혹은 “사물의 인접성”에 바탕을 둔 비유로 인해 다른 대상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경우(심재기, 2012: 207), 기존 고유어가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모여 합성어가 되는 경우, 우리 음운에 바탕을 둔 의성어가 곡명(曲名)으로 사용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절에 해당하는 어원설을 다시 둘로 나누면 기존 방언(方言)¹⁸⁾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로 나누어진다.

우선 기존 방언에 바탕을 두지 않은 내용을 살펴보겠다. ‘라라(羅蘿)’와 ‘동동(動動, 穢穢)’인데 둘 모두 음악에 사용되는 어휘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라라(羅蘿)’는 태평소(太平簫)가 내는 소리이고, ‘동동(動動, 穢穢)’은 북이 내는 소리라고 설명되었다. 즉, 이 두 어휘는 모두 의성어(擬聲語)인 셈이다. 이들은 비록 특정 방언 어휘에 뿌리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국어 고유 음운에 바탕을 두고 있기에 고유어 어원설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기존 방언에 바탕을 둔 내용을 살펴보겠다. 〈표 2〉에서 ‘가리(駕犁)’부터 ‘수리치’까지는 하나로 묶어 생각해볼 수 있다. 이들의 어원은 모두 농경 생활과 관련되는 기물(器物)에 있기 때문이다. ‘가리’와 ‘철가래(鐵加羅)’는 그 뜻은 각각 해오라기와 모자로서 다르지만 똑같이 농기구 ‘가리’로써 어원이 설명되고, ‘섬[島]’은 곡식을 쌓아두는 섬으로써 어원이 설명되었다. 또한 ‘수릿날[水瀨日], 수렛날[戊衣日], 수리치’는 모두 농경 생활에서 중요한 운송 수단인 수레[수리, 車]로써 어원이 설명되어있다. 한 어휘의 의미역이 다른 사물에까지 넓혀졌다는 것은 그 어휘가 해당 언어공동체에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를 민간어원에는 당대 한국에서 농경의 중요함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보라(甫羅), 가막수리(伽漠戌伊), 발남박(李南朴)’은 모두 응골명(鷹鵠名)이다. 『청장관전서(青莊館全書)』에서는 이들을 고유어 어원설로 설명하였으나 이기문(1966)에서는 국어 응골명의 기원은 몽고어에 있다고 말한다.¹⁹⁾

18) 17C~19C에 방언(方言)은 “중국의 변방어”, “어느 한 나라에서 쓰는 말” 또는 “어느 지방에서 쓰는 말”로 쓰였다(정승철, 2013:31-32). 물론 서울말에 대비되는 존재로서 ‘방언’이 쓰이는 경우도 있었으나 본고에서 다른 자료들의 맥락상 여기에서는 방언을 “중국의 변방어”나 “어느 한 나라에서 쓰는 말”的 뜻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19) 이기문(1966: 148)에서는 여진어(女眞語)에서 차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음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직접적인 어원 분석에 여진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이기문(1966)은 『신증응골방(新增鷹鵠方)』과 『세종실록(世宗實錄)』에 사실상 국어 응골

〈표 2〉 고유어 어원설

어휘	II-2	기존 방언(方言)
라라(羅蘿)	(1)-나-1	
동동(動動)	(2)-나-2	없음.
동동(蓼蓼)	(2)-나-3	
가리(駕犁)	(2)-나-1	
철가래(鐵加羅)	(7)-나-1	가리
섬(苦)	(3)-나-3	섬(苦)
수릿날[水瀨日]	(5)-나-1	
수랫날[戊衣日]	(6)-나-1 (8)-나-1	수리/수레
수리치	(5)-나-2	
서야벌(徐耶伐)		
서나벌(徐那伐)		
서라벌(徐羅伐)	(3)-나-1	
사라(斯羅)		새로워[新]
사로(斯盧)		
서월[徐兀]	(3)-나-2	
보라(甫羅)	(3)-나-4	보라
가막수리(伽漠戍伊)	(3)-나-5	가막
발남박(李南朴)	(3)-나-6	발남
마립간(麻立干)	(2)-나-4	마립간
담울씨(談鬱氏)	(3)-나-7	담, 울
안출호수(按出虎水)	(5)-나-3	안출호

이기문(1966)뿐만 아니라 이기문(1985a, 1985b, 1991b)을 참고해 보면, 위의 세 명칭 중 ‘보라’는 어원이 몽고어 ‘boro’에 있음을 분명해 보인다.²⁰⁾ 몽고어에 어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차용어 어원설이 사라지고

명의 전부가 수록되어 있다면서 그 기원을 몽고어에서 찾는다.

20) 이기문(1985a: 174-175)에 따르면 ‘부루말’의 ‘부루’도 ‘보라매’의 ‘보라’와 함께 ‘boro’에서 기원을 두고 있다.

고유어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은 ‘보라’가 귀화어(歸化語)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가막수리’와 ‘발남박’의 어원에 관한 연구는 아직 보지 못했다. ‘가막’과 ‘발남’도 몽고어에 어원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고유어에 기원하는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²¹⁾

『성호사설(星湖僕說)』에서는 ‘마립간(麻立干)’의 어원이 두 번 고찰된다. 그런데 한 번은 고유어 어원설로, 다른 한 번은 차용어 어원설 중 한자어 어원설로 설명된다. 여기에서는 고유어 어원설로 설명된 부분만 살펴보고 후자에 대해서는 4절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마립간’의 고유어 어원설은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언급된 김대문의 설을 따른 것이다.²²⁾ 다만, 『성호사설(星湖僕說)』에는 마립간(麻立干)의 어떤 부분이 궐(樞)의 뜻인지 설명되어 있지 않으나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마립(麻立)’이 궐(樞)의 의미임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점과²³⁾ 『성호사설(星湖僕說)』에서는 함조(誠操)가 먼저 언급되고 보충 설명을 위해 궐(樞)을 말하나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는 궐(樞)이 먼저 언급되고 보충 설명을 위해 함조(誠操) 개념을 말한다는 점이 다르다.

4. 차용어 어원설

‘차용어 어원설’은 해당 어휘를 차용어(借用語, loan word)²⁴⁾로 보고 어원을 도출해내는 민간어원을 말한다. 물론 대상의 기원을 두고, 그것이 본래 고유어였는지 차용어였는지는 알 수 없을 터이다.²⁵⁾ 여기에서는 각 자료의

21) 발남박을 설명하는 내용에 등장하는 ‘도령태(盜鈴馭)’의 경우 이기문(1966: 143)에 나오는 “도롱태(都農太)”와 같아 보인다. 이기문(1966)은 도롱태(都農太) 역시 몽고어 ‘durimtai’ 혹은 ‘turimtai’에서 차용되었다고 보고 있다.

22) 「第二南解王」, 『三國史記』一.

23) 마립간(麻立干)의 간(干)의 의미는 이기문(1991a: 14)에서 이사금(尼師今)의 금(今)과 함께 어휘의 기본이 됨을 말하였다.

24) 고유어가 “본래부터 국어에 있었던 어휘”라면 차용어는 “다른 나라 말에서 들어 와 국어의 일원이 된 것”을 말한다(심재기, 2012: 41-42).

25) 어느 정도의 충위까지 분석할 것인지를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A라는

당대(當代)에 일반 언중(言衆)들에게 고유어로 인식되었다면 고유어로 보고 이 ‘고유어’를 차용어로 분석한 어원 설명은 민간어원으로 본다.

이 범주에 해당되는 민간어원은 다시 둘로 나뉜다. 국어와 함께 알타이어족에 속하지 않는 범어(梵語), 중국어(中國語), 한자어(漢字語)가 한 묶음이고, 국어와 함께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몽고어(蒙古語), 거란어(契丹語), 만주어(滿洲語), 여진어(女眞語)가 또 한 묶음이다. 비알타이어족 범주 중 한자어는 전면적으로 그 체계가 도입되어 우리말 속에서 “생산력”을 지니기에 다른 언어로부터의 차용과는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국어와 구별하였다(이기문, 1991a: 20-21; 1985b: 75-76).

우선, 알타이어족이 아닌 범어(梵語), 중국어(中國語) 그리고 한자어(漢字語)부터 살펴보겠다. 범어는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그 영향으로 우리말에 차용되기 시작하여 지금껏 깊은 관계에 놓여 있다(김해진, 1947). 저자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어휘가 분명히 범어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지 못하고 범어와 우리말의 음상(音像)과 의미가 유사함을 제시하는 데에 그친다. ‘어마’는 ‘아미(阿彌)’와 모친(母親)의 의미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형태가 유사한데 이에 대해서는 한자어 차용어를 다루며 더 알아보겠다. 중국어(中國語)의 경우에는 범어(梵語)보다 우리말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직접 교류가 많았기 때문이다.²⁶⁾ 그렇기에 모호하게 서술된 범어 차용어 어원설과는 달리 중국어 차용어 어원설은 자의(字意), 음운(音韻), 역사(歷史), 고어(古語)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분석과 깊은 이해를 통해 제시되어 있다.

한자어(漢字語)는 17C~19C에는 이미 국어 체계의 일부였다는 점에서 중국어 차용어와 성격을 달리 한다. 〈표 3〉의 ‘아부(阿父)’와 ‘아미(阿彌)’는 본래 당(唐)의 말이었다고 하나 글자로 들어와 한국식 한자음으로 읽은 것

단어가 현재는 고유어로 인식되고 있지만 본래 b언어의 A'에서 유래했고, A'는 c언어의 A''의 유래했다고 했을 때, A가 고유어인지, A'의 차용어인지, A''의 차용어인지는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때에 따라 연구자의 재량 혹은 언중들의 인식에 따르는 것이다.

26) 이기문(1985b)에서는 당시 중국어 차용어를 현대의 구미 차용어(歐美 借用語)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표 3〉 차용어 어원설(1)

어휘	II-2	언어
수아(酥兒) 사람 마리 어마 바다	(1)-다-1 (3)-다-1 (3)-다-2 (3)-다-3 (3)-다-4	범어(梵語)
뭇 한(漢, 汗) 아들 누비(縷飛) 대패(大牌) 거사(居士)	(4)-다-1 (4)-다-2 (4)-다-3 (7)-다-1 (7)-다-2 (7)-다-3	중국어(中國語)
아부(阿父) 아미(阿彌) 두만(豆滿) 안시성(安市城) 구구 마립간(麻立干) 선왕당(船王堂) 야광(夜光) 공지(貢指)	(1)-다-6 (2)-다-1 (2)-다-2 (2)-다-3 (2)-다-4 (3)-다-6 (5)-다-11 (6)-다-1	한자어(漢字語)
달화주(達化主) ²⁷⁾ 복아(卜兒) 불화(不花), 백안(伯顏) 고고매(苦苦妹)	(1)-다-2 (1)-다-3 (1)-다-5 (5)-다-9 (8)-다-1	몽고어(蒙古語)
몰리(沒里) 사리	(1)-다-4 (5)-다-10	거란어(契丹語)
절다(截多) 구랑(勾郎) 부루(夫妻) 가라(加羅) 공꼴(公鵠) 고라(高羅) 가리온(加里溫) 간자(間者)	(5)-다-1 (5)-다-2 (5)-다-3 (5)-다-4 (5)-다-5 (5)-다-6 (5)-다-7 (5)-다-8	만주어(滿洲語)
스나흐!(斯那海) 가스나흐!(假斯那海)	(3)-다-5	여진어(女眞語)

이므로 한자어 차용어 어원설에 포함된다. 한편, 이 두 어휘 중 ‘아미’는 〈표 3〉의 ‘어마’는 모친(母親)이라는 의미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형태가 유사하다.²⁸⁾ 그런데 ‘어마’는 범어 차용어로, ‘아미’는 한자어 차용이 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정확한 어원을 알 수는 없으나 ‘어마’ 혹은 ‘아미’가 차용어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귀화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이미 귀화어가 된 어휘를 두고 범어 혹은 한자어에서 빌려온 것으로 추측한 점을 통해, 그만큼 범어와 한자어가 우리말에 밀착되어 있다고 생각한 당대의 어원 의식을 감지해 볼 수 있다.

3절에서 상술(上述)하였듯이 마립간(麻立干)은 『성호사설(星湖僊說)』에 서로 다른 성격의 어원설이 두 개 들어 있다. 하나는 고유어 어원설로서 3절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나머지 하나인, 한자어 차용어 어원설로 설명된 내용을 살펴보겠다. 이 어원설은 ‘마립간(麻立干)’의 ‘마(麻)’의 자의(字意)와 『주례(周禮)』에서 동성(同姓)과 이성(異姓)에 따라 입는 상복이 다름에 근거한다. 물론 『주례(周禮)』가 주(周) 나라와 전국시대 나라들의 예법(禮法)을 담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세종(世宗) 때에 간행되었다. 또한 고대신라에서는 유학이 국가사상이 아니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보면 이 어원설은 유학자였던 이익(李瀆)과 당대 조선 사회의 사상적 배경을 반영하는 민간어원설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왕당(船王堂)’의 경우 중국어의 독법(讀法)과 달리 한국식 독법에 이끌려 생긴 차용어 어원설이다. 어떻게 읽었는지 정확히 재구(再構) 할 수는 없으나 현재 동일한 의미와 실현음(實現音)을 가진 어휘 ‘서낭당’의 옛말로 보인다.

다음으로, 알타이어족에 해당하는 몽고어(蒙古語)·거란어(契丹語)·만주어(滿洲語)·여진어(女眞語) 차용어 어원설에 대해 살펴보겠다. 알타이어족의 경우 언어 체계의 유사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몽고, 거란, 만주,

27) 이기문(1991a: 21)에서 올바른 어원설임이 밝혀졌으나 『지봉유설(芝峯類說)』을 어학서라고 보거나 이수광을 어학자라고 보기 힘들어 민간어원으로 보았다.

28) 첫 음절이 ‘이’와 ‘아’로 다르다는 점을 빼고서는 ‘아미(阿彌)’에 호격조사(呼格助辭) ‘·아’를 붙인 형태라고 볼 수도 있겠다.

여진과 모두 교류를 했기 때문에 무엇이 정확한 어원인지 구분해내기란 쉽지 않다. 이기문(1991b)에서는 몽고어 차용어에 중점을 두고 여러 차례 논한 바 있는데 〈표 3〉에는 만주어(滿洲語) 차용어 어원설로 되어 있는 ‘절다(截多), 구랑(勾郎), 부루(夫妻), 공골(公鶲), 고라(高羅), 가리온(加里溫), 간자(間者)’는 이기문(1985a, 1991c)에서 모두 몽고어 차용어임이 밝혀진 바 있다.²⁹⁾ 몽고어 차용이 일어난 시기가 고려시대이므로 17C와 18C에는 이미 그 어원의식이 사라진데다, 당시에는 만주 지역에서 말[馬] 매매가 일어나 몽고족보다 더 많은 교류가 일어나 만주어 차용 어원설이 발생했다고 보인다.

〈표 3〉에서 여진어(女眞語) 차용어 어원설로 분류된 두 어휘 중 ‘가스나 헤(假斯那海)’의 경우 이기문(1987)에서 ‘가시내’의 어원과 함께 그 어원이 분석된 바 있다. 그런데 이기문(1987)에서는 차용어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권덕규(權惠奎)의 논의와 양주동(梁柱東)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자료인 「칠대만법(七大萬法)」(1569)을 가져와 새로운 어원론을 펼쳤다.³⁰⁾ 「칠대만법(七大萬法)」에는 경상방언으로 ‘가스나헤’가 나와 있는데 이는 『청장관전서(青莊館全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IV. 결론

지금까지 17~19C 실학사상가들의 저술에 나타난 고유어 민간어원 자료를 고찰해보았다. 국어학에서는 아직 민간어원에 대한 일반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본고에서는 “어원 분석 주체가 (국)어학자가 아니거나, 실제 어원에 어긋나는 내용이거나,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어원론”으

29) 공골(물)(이기문, 1985a: 170), 가리운(이기문, 1985a: 172), 부루(물)(이기문, 1985a: 174), 가라(물)(이기문, 1991c: 125), 간자(물)(이기문, 1991c: 126), 고라(물)(이기문, 1991c: 127), 구렁(물)(이기문, 1991c: 127), 절다(물)(이기문, 1991c: 133)

30) ‘가스나헤’를 두고 ‘갓’과 ‘아히’의 복합으로 분석하였다(이기문, 1991a: 112).

로 정의 내리고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의 하에 분석한 자료는 『지봉 유설(芝峰類說)』, 『성호사설(星湖僊說)』, 『청장관전서(青莊館全書)』, 「화음방 언자의해(華音方言字義解)」, 『경도잡지(京都雜誌)』, 『발해고(渤海考)』, 『열양세 시기(洌陽歲時記)』, 『아언각비(雅言覺非)』,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등 총 9 개의 실학 관련 논저였다. 실학사상가들의 우리 것에 대한 깊은 관심은 국어학 분야에서는 어원 연구, 그 중에서도 고유어 민간어원의 채록과 고찰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이들을 검토한 결과, 총 71개의 민간어원 자료를 찾아낼 수 있었다.³¹⁾ 우선 II장에서는 저자와 논저별로 이를 자료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III장에서는 그 성격에 따라 다시 설화적 어원설, 고유어 어원설 그리고 차용어 어원설의 3개 범주로 자료를 분류·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III장을 중심으로 하여 내용을 정리해본 후,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가늠해보도록 하겠다.

‘설화적 어원설’은 설화를 포함하는 민간어원으로서, 여기에서 설화는 구전되는 산문성을 가진 이야기로 정의되었다. 여기에 해당되는 어원설은 총 16개가 모아졌다. 이들은 다시 둘로 분류되었다. 기존 문헌에 근거하지 않은 어원설이 하나였고, 기존 문헌에 근거한 어원설이 다른 하나였다. 전자(前者)의 경우 저자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를 모아 적어 놓았거나 스스로 추측하여 적어 놓은 어원설이었다. 후자(後者)의 경우 모두 『삼국사기(三國

31) 본고에서 찾아낸 민간어원설의 수량을 표로써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설화적 어원설	고유어 어원설	차용어 어원설	계
『芝峰類說』	2	1	6	9
『星湖僊說』	5	4	5	14
『青莊館全書』	1	7	6	14
『華音方言字義解』	·	·	(3)	3
『京都雜誌』	1	2	11	14
『渤海考』	1	1	1	3
『洌陽歲時記』	2	1	1	4
『雅言覺非』	·	1	3	4
『東國歲時記』	4	1	1	6
계	16	18	37	71

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었다.

‘고유어 어원설’은 고유어 체계 안에서 해당 어휘의 어원을 분석해낸 민간어원으로 정의되었다. 여기에 해당되는 어원설은 총 18개가 모아졌다. 이들은 다시 둘로 분류되었다. 기존 방언(方言)에 바탕을 두지 않은 어원설이 하나였고, 기존 방언에 바탕을 둔 어원설이 다른 하나였다. 전자의 경우 모두 국어 음운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의성어였다. 후자의 경우 농경생활과 관련된 어휘에 바탕을 둔 어원설, 귀화어(歸化語) 어휘에 바탕을 둔 어원설 등이 있었다.

‘차용어 어원설’은 고유어 체계 밖에서 해당 어휘의 어원을 분석해낸 민간어원으로 정의되었다. 차용어 어원설에 해당되는 어원설은 총 37개가 모아졌다. 이때, 계통론의 관점에서 국어가 알타이어족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범어(梵語), 중국어(中國語), 한자어(漢字語)에서 차용했다고 보는 비알타이어족 차용어 어원설과 몽고어(蒙古語), 거란어(契丹語), 만주어(滿洲語), 여진어(女眞語)에서 차용했다고 보는 알타이어족 차용어 어원설로 나누어 기술하되, 국어에서 한자어의 특수한 지위를 감안하여 비알타이어족 차용어 어원설 중 한자어 차용어 어원설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17~19C 어원론의 경향이 비교언어학에 치우쳐 있는 만큼 이 부분에서 흥미로운 해석이 많이 보였다. 전자의 경우, 간접적으로 유입된 범어는 피상적인 어원설을, 직접적으로 유입된 중국어는 본격적이고 분석적인 어원설이 보였다. 한자어 차용어 어원설에서는 고유어 어원설로 이미 설명되었던 ‘마립간(麻立干)’이 한자 차용어 어원설로 같은 저자인 이익(李瀆)에 의해 다시 금 분석되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방언 어휘 ‘마립’을 핵(核)으로 보아 설명하였던 고유어 어원설과는 달리 유교사상을 투영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는 당대 사상적 경향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았다. 후자의 경우, 몽고어 차용어가 만주어 차용어 어원설로 설명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로써 실생활에서의 접촉과 인식이 민간어원에 반영된다고 보았다.

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간 국어 민간어원은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비과학적이고 근거 없이 지어낸 어원으로 치부되곤 했다. 그러나 70여개의 고유어 민간어원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민간어원이 당대 화자들

의 언어관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역사관, 사회관까지 감지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민간어원의 가치는 곧 17~19C 실학사상의 주요한 특질로 파악되는 ‘우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한 자주성과 맥(脈)을 함께 한다.

본 연구에는 두 가지 한계가 있다. 하나는 자료가 양적(量的)으로 부족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미해결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자료의 부족은 후에 한자어 민간어원에까지 연구의 범위를 넓혀 나감으로써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실제로 자료 분석 과정에서 고유어보다 한자어에 대한 민간어원이 더 많이 보였다. 문제는 미해결 문제들이다. 「화음방언자의해(華音方言字義解)」에서 민간어원을 완전히 분류해내지 못한 점과 한자로 표기된 어휘의 경우 그 독법(讀法)이 분명하지 않아 자료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지 못한 점은 가장 큰 미해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미해결 문제들에 대한 해결법은 결국 자료를 정밀히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에 있으리라 생각한다.

민간어원은 당대의 언어와 사회를 동시에 감지할 수 있기에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언어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이해도 동반되어야하는 까닭에 그 연구 과정이 혼난하기도 하다. 특히 한자어 민간어원은 언어 공동체의 범위가 한반도에 머물지 않고 중국으로, 때로는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 전체로 넓어진다. 그러므로 차후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국어학과 국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언어와 역사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수적일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김부식·일연(1999), 이병도 역주, 《삼국사기·삼국유사》, 두계학술재단.
- 이수광(2001), 남만성 역주, 《지봉유설》, 을유문화사.
- 이익, 한국고전번역원 역주, 〈성호사설〉, 〈홈>고전번역서) 성호사설〉, 고전번역원 DB.
- 이덕무, 한국고전번역원 역주, 〈청장관전서〉, 〈홈>고전번역서) 청장관전서〉, 고전번역원 DB.
- 姜憲圭 (1992), 〈華音方言字義解 譯註, 2〉, 《어문교육논집》12, 부산대학교국어교육과.
- 洪錫謨 外(1987), 韓國學 研究院 編, 《(原文譯註)東國歲時記 外》, 서울: 大提閣.
- 丁若鏞(1976), 金鍾權 譯, 《雅言覺非》, 서울: 一志社.

2. 논문 및 저서

- 강신항(201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실학시대 문자·음운에 관한 연구〉, 《韓國實學思想研究 3 語文學·藝術篇》, 서울: 혜안.
- 강현규(2003), 《국어어원학통사》, 서울: 이희문화사.
- 김방한(1990), 《어원론》, 서울: 민음사.
- 김병균(1997), 〈‘華音方言字義解’의 漢字借用語 研究〉, 《語文論集》25-1, 중앙어문학회.
- 김병균(2001), 〈華音方言字義解’에 나타난 韓字借用語의 語源 研究: 親族語彙를 中心으로〉, 《語文論集》29-1, 중앙어문학회.
- 김해진(1947), 〈범어와 우리말〉, 《한글》12, 한글학회.
- 나경수(2007), 〈영재 유득공 『경도잡지』의 민속문화론적 가치〉, 《大東漢文學》27, 대동한문학회.
- 남풍현(1985), 〈民間語源 數題〉, 《국어학》14, 국어학회.
- 朴文烈(1987), 〈青莊館 李德懋의 生涯와 著述〉, 《人文科學論集》6, 청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박종홍 외(1983), 이을호 편, 〈實學의 現代的 理解〉, 《實學論叢》,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 백낙준(1983), 이을호 편, 〈實學의 現代的 理解〉, 《實學論叢》,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 백상현(2002), 〈《雅言覺非》의 分析的 研究〉,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재기 외(2011), 《국어 어휘론 개설》, 서울: 지식과 교양.
- 연규동(201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실학시대의 어휘 연구〉, 《韓國實學思想研究 3 語文學·藝術篇》, 서울: 혜안.
- 유춘희(1999), 〈정약용과 그의 《아언각비》〉, 《중국조선어문》 99,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 이경오(1983), 이을호 편, 〈顧齋 黃胤錫〉, 《實學論叢》,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 이규필(2011), 〈臺山 金邁淳의 學問과 散文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李基文(1965), 〈近世中國語 借用語에 대하여〉, 《國語 語彙史 研究》, 서울: 동아출판사.
- _____(1966), 〈鷹鵠名의 起源의 考察〉, 《國語 語彙史 研究》, 서울: 동아출판사.
- _____(1978), 〈語彙 借用에 대한 一考察〉, 《國語 語彙史 研究》, 서울: 동아출판사.
- _____(1985a), 〈蒙古語 借用語에 대한 研究〉, 《國語 語彙史 研究》, 서울: 동아출판사.
- _____(1985b), 〈語源 研究의 方法〉, 《國語 語彙史 研究》, 서울: 동아출판사.
- _____(1986), 〈借用語 研究의 方法〉, 《國語 語彙史 研究》, 서울: 동아출판사.
- _____(1987), 〈國語 語原 研究에 대하여〉, 《國語 語彙史 研究》, 서울: 동아출판사.
- _____(1991a), 〈國語 語彙史의 構想〉, 《國語 語彙史 研究》, 서울: 동아출판사.
- _____(1991b), 《國語 語彙史 研究》, 서울: 동아출판사.
- _____(1991c), 〈中世國語의 蒙古語 借用語〉, 《國語 語彙史 研究》, 서울: 동아출판사.
- 이선영(2004), 〈《성호사설》에 대한 국어학사적 검토〉, 《애산학보》 30, 애산학회.
- 이장희(1983), 이을호 편, 〈芝峯 李睟光〉, 《實學論叢》,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 장덕순(2006), 《구비문학개설》, 서울: 일조각.
- 정승철(2013), 《한국의 방언과 방언학》, 서울: 태학사.
- 조성산(2012), 〈18세기 후반~19세기 중반 조선(朝鮮) 세시풍속서 서술의 특징과 의의: “중국(中國)” 인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60, 조선 시대사학회.
- 조향범(2009), 《국어 어원론》, 도서출판 개신.
- 최승호(1983), 이을호 편, 〈星湖 李灝의 生涯와 思想〉, 《實學論叢》,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 Rundblad, Gabriella & Kronenfeld, David B.(2000), “Folk-Etymology: Haphazard Perversion or Shrewd Analogy?”, *Lexicology, Semantics and Lexicograph*,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Yakov Malkiel(1993), *Etymology*, Cambridge Univ. Press.